

김봉중씨 사이언스 제 1저자 발표

〈광주과학기술원 졸업생〉



광주과학기술원 졸업생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성과를 거뒀다. 25일 광주과학기술원(원장 선우중호)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퍼듀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봉중(35·사진)씨가 최근 각광받는 연구 분야인 실리콘 나노선의 초기 핵 생성과 성장 전반의 과정을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이를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활용, 정량적으로 규명해 국제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김봉중씨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와 협력한 이 연구결과는 최근 '사이언스' 온라인판(11월14일자) 게재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국지수양 골든벨 왕중왕 2위

〈살레시오여고 3년〉



광주의 한 여고생이 KBS 1TV '도전 골든벨 2008 왕중왕전'에 참가, 전국 100명의 학생과 실력을 겨루며 2등을 차지했다. 주인공은 광주 살레시오여고 3학년 국지수(18)양. 국양은 지난 23일 서울 숙명여대에서 열린 '도전 골든벨' 녹화방송에서 총 50문제 가운데 연속으로 39번째 문제까지 풀었지만 어렵게 40번째 문제를 풀지 못해 2등을 차지했다. 국양은 지난 5월 학교에서 열린 '도전 골든벨' 녹화방송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왕중왕전 참가 자격을 얻었다. 국양은 "비록 2등에 그쳤지만 학창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다"며 "열심히 공부해 내 인생의 '골든 벨'을 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양이 참가한 왕중왕전은 다음 달 28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되며 살레시오여고에서는 27일 국양에 대한 시상식과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애인 복지시설 '실로암 센터' 준공식



전국 최초로 건축물에 인본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광주시 남구 주월동 '실로암 센터' 준공식이 26일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 제공〉

한전 전남본부 나주서 전기보수 봉사



한국전력 전남본부 사회봉사단(단장 김귀중)은 26일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의 능가 80여호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보수 및 의료상담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한국전력 전남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측
▲박화강(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한정희씨 차남 민재근 김재수·김여순씨 장녀 정은양=29일(토) 낮 12시 윤양동 그랑시아웨딩 타워 5층 그랜드볼룸.
▲김현웅(광주시 도시건축국장)·김명심씨 장남 재승근 김명성·이향남씨 장녀 문미양=29일(토) 낮 1시 상무지구 에블루션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룸.
▲그레임·샬리씨 차남 이안근 노승희(학다리고 광주·전남문화회관, 전 국민은행 지점장)·고영숙씨 장녀 채린양=29일(토) 오후 4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 A홀.
▲강봉식·조영덕씨 3남 심백(국성 오산초 행정실장)·조동호·김영순씨 장녀 송희(전남대병원 간호사)양=30일(일) 낮 12시 양동 웨딩

함평 골프교·영광 흥농중에 골프 장학금 이심교 영광원전본부장

“제2·제3의 신지애 뒷바라지 할 터”

“신지애, 영광원전 골프장서 훈련·후원 받아”
“우리 지역에서 제2, 제3의 신지애가 나오길 바랍니다.”
“골프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의 성공 뒤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이하 영광원전)가 있었다. 영광원전은 신지애에게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게 해주었고, 초·중학교 시절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뒷바라지를 했다. 영광원전 이심교 본부장은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신지애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신 선수의 성공 스토리에 영광원전이 한 단락을 새기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영광으로 이사 온 신지애는 흥농초등학교 5학년 때 영광원전 내 골프연습장에서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았다. 또 고교 졸업 때까지 그곳에서 골프 연습을 해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영광원전과 직원 동호회 회원들은 당시 가정 형편이 넉넉치 못했던 신지애의 재능을 알고 그가 꿈을 잃지 않도록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큰 도움을 주었다. 이같은 신지애와의 특별한 인연 덕에 영광원전은 제2, 제3의 신지애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골프 꿈나무 육성 장학금”을 마련, 함평 골프교에 다니는 김이나(17)양과 영광 흥농중 남공요(15)군을 후원키로 한 것이다. 영광원전은 최근 본관 대회실에서 “골프 꿈나무 육성 장학 결연식”을 갖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앞으로 1년 동안 이들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와 전지 훈련 경비 일부를 후원키로 약속했다. 이 본부장은 “이 지역 출신 신지애 선수의 최연승 LPGA 우승으로 지역민들이 골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영광원전은 주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골프 꿈나무를 발굴, 후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래에 대한 투자 중 제일 으뜸은 재능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신지애 선수처럼 영광 출신 학생 골퍼들도 어려운 환경을 딛고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영광=조익성기자 ischo@



아름다운 선행 화순 50대 농부 쌀·고구마 기탁

“꽃보다 아름다운” 쌀로 찾아온 얼굴없는 천사는 누굴까?
완도군은 26일 “지난해 익명으로 10kg들이 쌀 100포대를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기부했던 독지가가 최근 완도농협을 통해 50포대를 또다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독지가는 “많은 양이 못돼 미안하다. 겨울철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데 함께해 달라”는 뜻과 함께 완도농협에서 가공한 쌀을 보내왔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차상위계층 50가구를 선정해 1포대씩 지원할 방침이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꽃보다 아름다운”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양면사무소는 이 쌀과 고구마를 지역의 혼자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경로당 27곳에 생필품·청소 봉사

전남체신청 노사... 소년소녀가장 후원도
전남체신청 노사가 광주·전남지역 경로당을 찾아 청소와 도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6일 전남체신청에 따르면 김치동 청장동 박동원 체신노동조합 전남본부 위원장 등 노사 400여명이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광주·전남지역 경로당 27곳을 찾아 생필품 수품을 전달하고 청소·도배·도색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남체신청은 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예금보환사업 공익기금 등으로 소년소녀가장 생계비·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불우이웃 자매결연 후원 및 장애인 암 치료비 지원 등 정기적으로 600여명에게 연간 7억 원을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아름다운 나눔 바자회, 무료급식 봉사, 독거노인 집수리,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 이광희 교수 연구개발 우수 100선에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광희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이 교수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앨런 히거 교수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효율의 플라스틱 태양전지를 개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고용·인적자원 개발 토론회



윤종욱(조선대 교수) 한국인적자원개발회장은 27일 오후 3시 조선대 경상대학이 주최한 광주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 교수와 손동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진철 조선대 교수, 최광신 한려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가 광주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실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원자력 개선 방안’ 세미나



최흥엽(조선대 법학연구원장)은 27일 오후 2시30분 법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에서 ‘원자력 통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효율적·통합적 원자력통제 제도의 확립을 위해 원자력 통제 3대 수단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보해 아이디어 공모전 순천대 'Do the G' 대상

보해양조가 주최한 '제5회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순천대 '두 더 지(Do the G·사진)' 팀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Do the G' 팀(송승연·송충환·우호정)은 '이 천사의 속 편한 매쉬썬' 편으로 대상을 차지, 상금 200만원과 일본 산업 시험의 기회를 얻었다. 또 금상에는 호남대 'NO사연' 팀(이창재·박형권·김병용)과 목포대 '매취썬' 팀(임근영·정은아·감다정)이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일본 산업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이밖에 은상에는 조선대 '파랑새'팀 등 3개 팀이, 동상에는 광주대 '독한 놀똥'팀 등 4개 팀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연구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호남 지역 대학생 94개팀 247명이 참가했다. /이종대기자 jilee@

부음

- ▲정성덕씨 별세 창곡(전라남도 의회 의원)·병우(육군본부 국악실장)·장우(자영업)·귀우(삼성화재)씨 부친상 이동열(호남대 교수)·송정근(자영업)씨 부부상=발인 28일(금) 장성병원 장례식장. 061-393-4444.
▲최병순(전 초등 교장, 한국어문 연구회 광주지역 회장, 전 대한삼락회 전남지부 문화부장)씨 별세=발인 28일(금) 서울 이화여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2호실. 02-2650-2742.
▲김화순씨 별세 이양현(서울사무기 대표)·호현(롯데캐논 대표)씨 모친상 강대석(복사)씨 빙모상=발인 28일(금) 전남대병원 영안실 3분향소. 062-220-6985.
▲국판도씨 별세 재섭·연섭·열섭·재순·수남·현태·영순·현서씨 부친상 이원동·임낙주·지원덕·한중국·이남용씨 부부상=발인 28일(금) 각하동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Advertisement for '프리드' (Freedom) by 선진국형 정세시스템, featuring a phone number 1688-3740 and a photo of a man.

- 의 전당 금호 3층 노블레스홀.
▲박래웅·성경숙씨 장남 민선군 이귀현(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정기숙씨 장녀 슬희양=29일(토) 낮 1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2층 로즈메리홀.
▲김기승·정혜숙씨 장남 남규준 한애련(화순 오성초 교사)씨 삼녀 강수정양=29일(토) 오후 2시 서울 공화웨딩문화원 2층 루비홀.
▲박춘주(대한세라믹스 대표이사)·김재희씨 장남 건영(의정부지검 검사)·김도민(법무사)·김정중씨 딸 금현양=29일(토) 낮 1시 서울 대경호텔체식장.
동창·동문회
▲광주 북성중 27회 동창회(회장 윤영현) 월례회=27일(목) 오후 7시 장어촌. 062-368-3392.
▲광주공고 총동창회(회장 김영